

지역 소식통

정읍시, 13일 전북청년 창업페어 '정정화화' 개최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성화센터는 오는 13일 달하노리공 권 퍼런스센터 일대서 전북청년창업페어 '정정화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읍의 밝은 미래와 상생을 통해 화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청년창업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청년창업가와 지역기업 20개소 이상이 참여한다.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청년창업가 홍보부스·창업 상담부스 운영, 고용 가능 기업 선발을 통한 직업상담 및 고용유치, 성공창업가와 함께하는 창업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유튜브 28만 구독자를 보유한 '무빙우터'가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창업 토크쇼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소풍 프로그램 등이 준비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전북과대학 산학협력단, 급식관리지원 개시

정읍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 업무를 합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센터'로 통합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협약을 통해 전북과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사무를 합쳐 지난 1일부터 통합운영하고 있다.

추가된 사회복지 급식관리사업의 주요 내용은 50인 이하 노인·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식습관 분석을 통한 맞춤 식단 및 레시피 개발·제공 △조리원·종사자·이용자 등에 대한 대상별 방문교육 △위생·영양관리 방법지도 등이다.

지원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특별상'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균형발전사업 시상 "지역의 우수한 세계유산 7개 보물 활용한 참신한 시도로 로컬경쟁력 높여"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사업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우수한 자원(세계유산 7개 보물)을 활용한 참신한 시도로 로컬 경쟁력을 높이며, 농촌 지자체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고창군은 최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종기)로부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특별상 시상을 통보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의 특별상은 지난해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후 고창군이 2번째

수상이다. 정부자원이 없고 건물을 짓는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주요축제 페스티벌, 시티투어 등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만으로 승부한 고창군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이전 광역단위(전라북도 방문의 해)나 주변 시·군 단위에서는 4~5년 시차를 두고 진행됐지만 고창군에서는 첫 시도였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유산 7가

지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도시지만 '이게 아직도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우리 고창의 모든 것을 자신있게! 온 세계에 널리 자랑하라!'는 차원에서 방문의해가 시작됐다.

2차례에 걸친 선포식을 시작으로 제1회 고창빛꽃축제, KBS 열린음악회,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고창 기념행사, 한여름밤의 페스타 등 연중 끊임없는 축제와 유류관광지 무료개방, 각종 공모전 개최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주목 받았다.

/고창=김영식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 소통 행보 나서

31일까지 23개 읍면동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

이학수 정읍시장이 2024년 시민과의 대화로 시민 소통 행보를 이어 나간다.

이 시장은 9일부터 31일까지 정읍시 23개 읍면동을 방문한다. 각각

총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시민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운영 방향과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부안군-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동참

부안군은 9일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와 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상호기부했다고 밝혔다.

부안군과 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2019년도에 자매결연 맺고 지금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상호기부는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대장 황현대) 48명이 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곽종열) 50명이 동참해 두 지역을 응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안군 황현대 대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부안군과 사천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부안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의 폭을 한층 넓힌다는 계획이다.

9일 시가지·고부면·영원면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은 평소 겪었던 불편 사항을 비롯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시장과 국·소장들은 함께 건의사항을 듣고, 향후 계획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중심, 으뜸정읍'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사천시 곽종열 대장은 "자매결연 맺은 부안군과 상호기부 해 매우 기쁘다. 사천시와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선에서 굵은알에 앉아서 나서주시는 자율방범대분들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고향사랑기부금뿐만 아니라 두 단체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9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 이어지길"

권익현 부안군수,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권익현 부안군수는 9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챌린지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헌병도 국회의원인 시작됐다.

챌린지 지명을 받은 사람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증 후 다음 기부자를 지목해 릴레이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부안군은 지난달 20일 전주시 우범

기 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권익현 군수는 광주 서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 후 김이강 서구청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권익현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챌린지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챌린지의 영향력으로 부안군과 전주시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10곳 중 7곳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 만족

고창군 지역농가 10곳 중 7곳이 민선 8기 고창군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17농가(계절근로자 고용농가 150곳+일반농가 27곳)을 대상으로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농가 72%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서 올해 고창군에서 일하거나 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는 15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매년 일손부족으로 애대왔던 농가들의 인건비 안정화는 물론, 풀밭으로 놀리던 밭에 작물을 심으면서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 안정효과도 확인. 농가의 82%가 남자 인건비 10~11만원, 72%가 여자 인건비 9~10만원을 지급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고창군 조례에서 권고·제시한 범위내 하한선(남자 11~13만원, 여자 9~11만원)에서 인건비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65%로 제일 많았다. 이어 숙식제공(13%), 인건비 의견차이(8%), 근로자 근무태도(8%)순이었다.

현재 고창군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출신 전문관을 채용해 통역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미 배포한 언어소통도우미 책자를 확대 제작하고, 마을별 다문화가족과 연결해 현지 소통을 돕고, 언어 소통 동영상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농촌인력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 3대 사업으로 '농촌인력 적정인건비 조례제정·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 설립',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새역사를 써가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강화해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모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